



Aid to the
Church in Need

ACN INTERNATIONAL

‘100 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 캠페인

2022 년 3 월 17 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예레 29,11-14)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다른 이들은 숨어서 폭력과 추위,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끔찍한 고통은 다시 한번 악의 힘과 지독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평화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새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변모시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2000 년도 전에 성모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의 안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으며, 오늘날에도 마리아를 통해 저희에게 오시어 세상에 평화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충실한 종, 성모 마리아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악마를 물리치실 것이라고 약속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평화를 성모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파티마의 세 목동 중 9 살이었던 성녀 히야친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께서는 제 2 차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해

PONTIFICAL
FOUNDATION





Aid to the
Church in Need

ACN INTERNATIONAL

20 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평화 계획을 세 어린 목동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모님의 요청에 귀 기울이는 것에 너무나도 소홀했으며, 실행에 옮기는 것 또한 매우 느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평화와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베네딕토 16 세 교황이 2010 년 5 월 13 일, 50 만 명의 파티마의 순례자 앞에서 “파티마의 예언적 사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죽음과 테러의 순환을 촉발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2022 년에 이 단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심과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께서 세상의 슬픈 운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예로, 지난 3 월 6 일 사순 제 1 주일 삼종기도 이후 “우크라이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성모 마리아께 형제자매로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매년 10 월 18 일에 ‘100 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와 성인들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 캠페인’에 초대합니다. 이 특별 기도 캠페인은 2022 년 4 월 2 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날은 성 요한 바오로 2 세가 서거하신 날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의 사목 표어는 ‘온전히 당신의 것’(TOTUS TUUS)으로, 파티마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1984 년 3 월 25 일 세계와 러시아를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는 1917 년 5 월 13 일 첫 번째 발현에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하셨으며, 같은 해 7 월 13 일 두 번째 발현에서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주 성월인 10 월, 세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나는 묵주기도의 여왕이다.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CN 은 이 특별 기도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여, 앞으로 며칠 동안 여러분의 가정, 학교와 본당에서 우크라이나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의 신비 1 단씩 바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기도 고리”를 통해, 그리고

PONTIFICAL
FOUNDATION





Aid to the
Church in Need

ACN INTERNATIONAL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천진함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용기, 도움과 평화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상의 성 비오 신부는 “100 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비오 신부 또한 스스로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쳤기 때문에 “살아 있는 묵주기도”로 불리었습니다. 그는 모든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묵주기도를 자신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성 비오 신부는 이에 대한 자신의 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합창단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고함 소리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성당 광장에서 들려온 것이었지요. 저는 창문으로 가서 무력한 군중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도 예수! 타도 비오 신부!’ 저는 물러나서 성모님께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은 저에게 아주 작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너무 작아서 머리카락 속에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무기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돌아가 저의 무기를 들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군중들이 모두 의식을 잃은 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창문으로 갔더니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 만세! 성모 마리아 만세! 비오 신부 만세!’ 저는 응답했습니다. ‘아, 여러분이 저의 영적인 자녀들이군요. 항상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럼 그 누구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조차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님의 강력한 중재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ACN은 ‘100 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 특별 기도 캠페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모든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하느님께 간청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 마리아에게,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2022 년 3 월 17 일

마르틴 바르타 신부

ACN 지도신부

PONTIFICAL
FOUNDATION

